











Odaesan Meditation Villgag 오대산자연명상마을 OMV

오대산 월정사 출가학교

월정사성보박물관

YouTube오대산 월정사

사찰 경쟁력 높이려면 '브랜딩'에 주목하라!

프롤로그 불교도 브랜딩 시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종교가 웬 브랜딩?"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는 전통적으로 신성한 것이고, 세속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돼 왔다. 그래서 종교를 브랜딩의 대상으로 보려는 시도가 일찍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성한 종교를 비교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가!

소위 브랜딩이라 하면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상대방에게 주는 느낌과 이미지, 선입견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광고, 홍보, 마케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브랜딩은 기업과 상품, 그리고 공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많은 요소들이 개입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브랜드를 외치는 이유는 그가 가진 힘 때문이다.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해석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인식의 틀을 형성한다.

세계는 거대한 종교시장이다. 전 세계 인구 70억명 중 88%, 약 62억명이 종교를 갖고 있다. 10명 중 9명이 종교인이라는 것. 이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종교가 인류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필수적인가를 보여준다.

전 세계 인류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몇몇 공산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헌법으로 국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란 개인이 어느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갖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일종의 인권을 의미한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종교 선택을 강요당했던 과거와 달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는 '종교자유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종교자유시대와 더불어 세계는 서로 다른 종교브랜드들이 각자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내세워 서로 경쟁하고 있는 종교브랜드 전쟁터가 돼가고 있다.

문제는 종교에 대해 냉정하고 무관심해지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신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정체성과 이웃종교와의 차별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또 사찰마다 신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무형의 서비스'는 무엇일까? 미래의 사찰은 그 사찰의 사상과 가치를 담은 정체성과 타 사찰과의 차별성으로 마케팅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브랜딩이다. 잠재신도들이 사찰 브랜드를 비교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개원한 '저스트비(JustBe) 홍대선원'의 급부상은 사찰을 넘어 불교 브랜딩의 전형을 보여준다. 홍대선원은 다른 사찰과 경쟁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청년과 외국인이 쉽게 방문, 불교를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홍대선원이 다른 사찰들과 구분되는 점은 아주 온화하고 공동체의 느낌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다. 또 폭넓은 방문자층에게 매력적인 다양한 선택들을 제공한다. 강요가 없는 아침 예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담 시간, 채식 식단,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홍대선원은 '불교 활동'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브랜드가 돼가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의 신년특집 〈이젠 브랜드 시대〉는 불교, 그리고 사찰 브랜딩의 의미와 필요성과 더불어 성공적인 브랜딩으로 끌리는 사찰을 만들어낸 장소에는 어떤 비법이 숨어있는지, 성공하는 사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세상 힙한' 청년과 예술의 성지 서울 홍대 중심가에서 새로운 성지가 된 'JustBe 홍대선원', 지역과 상생하는 '화엄사', 오대산하면 떠오를 만큼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월정사' 등이 바로 그곳이다.

이번 신년특집에서는 '끌리는 사찰'을 만들어낸 장소에는 어떤 비법이 숨어있는지, 성공하는 사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사찰들이 선택한 전략을 살펴보고 각 사찰에 대입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알아본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여산 정여 대종사
주지 직무대행 산해 정오

총림대중 일동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